

요양병원 환자·종사자 첫 접종...일반 국민은 7월부터

광주·전남 코로나 백신 접종 어떻게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에는 백신을 언제, 어디서, 누구부터 접종 받는 지 등에 대한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누구부터 백신 맞나= 첫 백신접종 대상자는 요양·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다. 광주에선 26일부터 3월까지 요양·정신병원 65개소 환자와 종사자 8822명이 소속 의료기관에서 자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첫 접종군이다. 4월과 5월엔 요양·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83개소 2134명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팀으로부터 백신을 맞는다. 또 3~5월엔 고위험 의료기관 160개소 1만4415명이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한다. 같은 기간 119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 검체채취·검사·이송·실험 인력 등이 접종 대상자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 이들 모두는 1차 접종 후 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 절차가 마무리 된다. AZ백신 1차 접종 전남지역 대상자는 모두 3만3725명이다.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진, 종사자, 입사자 등이다.

전남에서는 26일 오전 10시 여수시 학동 흥국체육관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다. 이 곳에서는 여수시

1차 접종 후 1~2개월 사이에 추가접종...화이자 2월말~3월 초 가능
조선대병원 등 광주 접종센터 6곳...접종 후 15~30분 관찰 후 귀가

역 요양병원 의료진, 종사자 등 100명이 접종한다. 접종에 앞서 24~25일 전남지역 보건소 등지로 백신이 이송될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은 이르면 오는 27~28일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호남권 코로나 치료병원 21개소 종사자 5295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권역접종센터 또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한다. AZ백신과 달리 운반, 보관, 사용이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의료진 교육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초 예상과 달리 접종이 3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접종계획은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6~7월 순차적으로 노인재가 복지시설 8665명,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1760명 등, 65세 이상 20만 5666명, 의료기관 의료인 중 1차 대상자에서 제외한 9468명 등이 백신을 맞게 된다.

이르면 7월부터 질환 여부 등 접종순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례대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백신 접종일이나 종류 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또 일반 국민의 접종순서를 어떻게 할 지는 향후 중앙 방역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접종은 어디서, 어떻게=광주는 접종센터 6개

소(권역 1, 지역 5)를 마련한다. 중앙 방역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권역접종센터는 이미 조선대병원의 성관 5층에 설치됐으며, 나머지 지역접종센터 5곳은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3월 개소를 시작으로 동구 문화센터,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 스포츠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이 5~7월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접종방식은 독감 예방 접종과 비슷하다. 발열체크와 예진표 작성, 의사의 예진, 접종 시행, 접종 후 관찰 순으로 진행된다.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는 대상자는 접종 후 15분간 대기하고, 접종 위험군은 30분 동안 대기한 뒤 귀가하면 된다. 백신은 종류별로 2개월 내에 두 차례 접종하며, 올 2분기에 들어 올 안센은 1회만 접종한다.

백신은 현재까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체가 얼마나 유지될 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임상시험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독감백신처럼 매년 한 차례씩 접종하거나, 항체 유지 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맞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2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전자문진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산발적 n차 감염 계속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3명(광주1991~199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91번과 1993번은 타 지역(전북 1112번) 관련자이며, 1992번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모두 5명(광주 1986~1990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4명(광주 1986~1988번, 1990번)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다. 나머지 1명(광주 1989번)은 해외유입 사례다. 광주 1986, 1987, 1990번 확진자는 타지역 확진자를 만났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지난 21일 무안과 여수에서 각각 2명, 1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22일 오후 6시 현

재 목포에서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832명이 됐다.

여수 추가 확진자인 전남 831번은 30대 여성으로 전남 822번 지인이다. 명절 연휴 타지역 방문 및 가족 모임을 하다 감염된 여수시 일가족발 n차 감염이다. 무안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남 829번, 830번으로 지난 20일 확진된 무안 요가강사(전남 828번)의 딸이다.

22일 확진된 전남 832번(목포 거주)은 목포 화장품 방문판매업자(전남 811번) 고객이다. 이 확진자가 완도 소재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로 조사되면서 방역당국은 원생, 교사 등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설 이후 광주시청 임시검사소 1주간 1639명 검사·8명 확진

설 명절 이후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1639명이 임시 검사소를 찾았다. 15일 296명, 16일 261명, 17일 180명, 18일 264명, 19일 259명, 20일 218명, 21일 161명이 방문했다. 확진자는 15일 4명, 16일 1명, 18일 1명, 20일 2명 등 8명이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운영 중인 임시 검사소에선 전날까지 두 달여간 1만540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63명이 양성(양성률 0.41%) 판정을 받았다. 임시 검사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12~2시 방역 소독)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광주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든 검사가 가능하지만, 익명성 등 이유로 임시 검사소를 선호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인구문제 해결 국가가 주도해야”

‘지방 인구문제 방안’ 특별좌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쇠락 등 인구 문제는 국가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마저도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22일 한 월간지가 주최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인구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진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 지사를 비롯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조영태 서

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사상 첫 감소되는 등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장은 “30만 명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심각 현상의 근본 원인은 청년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며 “베이비부머가 여전히 활동중인 앞으로 10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로, 인구 정책만큼은 정당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피고 있다”며 “조례 심의나 예산결산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인구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차원의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남미래 먹거리 ‘양식산업’ 용역 착수

전남도는 미래먹거리인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양식산업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해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은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지도 ▲양식산업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 시장 진출 ▲양식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활성화 ▲국내외 양식산업 여건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연구용

역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양식산업 전문가 TF’를 구성했다. 구성인원은 총14명으로 민간 9명, 행정 4명, 학계 1명 등으로 짜여졌다. TF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작성에서 준공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 현장감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남 양식산업 발전 방안과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 하실분 수도권

경매 입찰/낙찰물건
경매 직전 부동산
급매로 나온 부동산
20년 노하우

최선규.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약각 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분할합병 및 자본감소공고 (채권자 이외의 제출공고)

성우토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성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1년 2월 22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채권(영양)의 일부인 석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그에 수반하여 “갑”은 자본금 금 205,000,000원을 금5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갑”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부수는 “을”이 승계하고, 합병 제 530조의 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과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갑” 회사 주식의 소지자는 1개월내에 관제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갑” 성우토건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808-9 대표이사 이병희

“을” 성우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808-9 사내이사 이병희

산행안내

2월 28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함백산”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주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